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03.26 (통권392호)



경제이슈

일본, 5개월 만에 무역흑자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

경영노트

다각화(diversification) 전략

사회 트렌드

미국의 한인 1.5세대 활약상

중국 MBA에 외국학생 밀물

저널 브리프

주요 신흥국의 최근 경제동향

洗心錄

바깥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 일본 5개월 만에 무역흑자

- 일본 재무성은 무역통계 속보를 통해 2월 무역수지가 329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22일 발표함
 - 무역수지 동향 : 일본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첫 흑자를 보였고, 1월에 1조 4,768억 엔의 사상 최대 적자 기록 후 회복세로 돌아섬
 - 수출 동향 : 전체 수출은 5조 4,409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하였으나,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하였고, 특히 자동차가 26.9% 증가하여 전체 수출을 견인함
 - 수입 동향 :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한 5조 4,079억 엔으로 2년 2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원유 수입가격 15.5% 증가가 결정적 원인
- 미국 경기 회복과 엔저 등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국제유가 강세 등으로 향후 무역수지 흑자를 낙관하기는 어려움

□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 최근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상승세를 보임
 - 국제 유가 추이 : 국제 유가는 2011년 초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120달러까지 급등한 이후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선진국 경기의 둔화 등으로 하락 하였으나 최근 다시 급등하여 120달러를 상회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이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싼 서방과 이란 간의 갈등이 유가 상승의 주요 배경
 -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 : 미국 경제 지표의 개선과 유럽재정위기의 해소 분위기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어 투자자금이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
- 국제 유가 불안은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는 물가 불안 확대와 경기 회복세 둔화가 우려됨

□ 다각화(diversification) 전략¹⁾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 못지않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
 - 자본시장에서는 위험관리의 방법으로 분산투자, 선물, 옵션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나 실물시장에서는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다각화가 보편적으로 사용
 - 주어진 예산 하에서 하나의 사업에 전념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노력과, 여러 사업에 동시에 투자하려는 다각화는 상충관계에 있음
- 다각화는 체계적 위험이 아닌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사용되며, 실물과 자본시장이 통합되면서 자본시장에서의 분산투자와 실물시장에서의 다각화는 서로 대체재의 성격을 지니게 됨
 - 산업 경기 사이클이 다른 사업들을 동시에 영위하는 방법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나 금융위기와 같은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무력
 - 해당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다각화가 자본시장에서의 간접 투자보다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정당성 확보 가능

< 다각화의 성공 전략 >

	내 용
신흥 시장 공략	- 신흥시장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자본집약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므로 자본 동원력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다각화 전략이 유효 - 선진국은 IT산업에서와 같이 자본력이나 정부 규제가 시장의 제약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다각화 전략의 실패 가능성이 높음
통제와 분권의 조화	- 사업부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전사적인 측면에서 최적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 - 사업부별로 인재선발 및 자본배분이 완료된 후에는 최대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인재의 유무	- 다각화의 효과는 기존의 사업과 무관한 새로운 사업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사내 혹은 외부에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

1) 본 자료는 McKinsey Quarterly의 'Testing the limits of diversification(February 2012)'를 참조하여 정리함

□ 미국의 한인 1.5세대 활약상²⁾

- 최근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이민해 미국에서 자란 한인 이민 1.5세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음
 - 세계은행 총재에 임명된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 한국인 최초로 주한 미국대사에 임명된 성 김, 벨연구소 역대 최연소 및 최초 외부인 출신 사장 김종훈,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 등이 그 예들임

- 1.5세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데는 이민 1세대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동기부여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음
 - 부모 세대와 달리 언어 장벽이 없고, 한미 양국의 문화를 고루 이해해 사고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음
 - 1.5세대는 1세대와 달리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2세대에 비해 성공에 대한 의지가 더 높다고 함
 - 이들은 청소년기에 한국, 미국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이를 성공에 대한 의지로 발전시켜 미주류 사회의 핵심에 진출하고 있는 것임

□ 중국 MBA에 외국학생 밀물³⁾

- 미국·유럽 등의 학생들이 중국의 비즈니스 스쿨(MBA)로 몰려들고 있음
 -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하면서 중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려는 서구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내 해외 유학생 26.5만 명(2010년말) 중 30%(8만 명)가 MBA 혹은 EMBA(고위경영자과정)에 다니고 있다고 25일 보도
 - 중국 MBA의 인기는 ▲ ‘차이나 스탠더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 ▲ 중국의 미래 지도자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점 ▲ 학비와 생활비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저렴한 점 등이 크게 작용

2) “다문화·패기가 한인 1.5세대를 미 정상에 세웠다”(조선일보, 2012.3.26)

3) “중국 MBA에 외국학생 밀물”(매일경제신문, 2012.3.26)

□ 주요 신흥국의 최근 경제동향⁴⁾

- 해외 상무관들이 보는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올해는 8%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물가 안정·부동산 투기 억제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
 - 중국의 10대 산업 진흥 정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 육성전략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중국과의 산업 경쟁이 심화될 것
 - (인도네시아) 내수 비중이 60%에 달해 유럽 발 재정위기 여파가 크지 않았고 안정된 정치상황 및 우수 관료 보유 등의 장점으로 인해 최근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
 -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계획에 한국 정부가 직접 참여하여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사무국이 설치되는 등 과거에 비해 유리한 진출기반이 조성된 상태
 - (브라질) 브라질 또한 수출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 내수 중심 시장으로 해외 리스크에 취약하지 않은 경제 구조를 보유
 - 국토 규모에 비해 철도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월드컵과 올림픽 행사를 앞두고 있어 고속철 및 일반 철도 구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
 -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으로서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나 고물가 및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우려됨
 - 현지 국영전력기업의 민영화 및 해외 기업의 민자 발전 유치 등을 통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력요금의 가파른 인상이 예상됨
 - (UAE) 두바이는 현재 외채가 1200억 달러에 달해 유럽 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 시행 가능성 존재
 - 외국인 사업자의 보유 가능 지분이 49%로 제한되어 현지 합작이 필수적임에 따라 합작 사업 과정 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4) '해외 상무관이 전하는 신흥국 경제동향'(파이낸셜뉴스, 2012.03.08) 참조

□ 바깥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장자(BC 369~289)는 노자와 함께 도가의 중심 사상가이다. 장자는 비실천적, 도피적, 방관자적 사상가라는 혹평 아래 경원되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그 점, 즉 얽은 지혜, 눈앞의 욕망, 입신 출세 따위를 조소하는 것 때문에 숭앙되기도 한다. 특히 세상을 보는 색다른 시각, 사물의 이면을 통찰하는 커다란 지혜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적지 않다. 『장자(莊子)』 山木 편에 나오는 다음 내용은, 바깥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를 돌보지 못한다는 교훈을 우화적으로 설명해 준다.

하루는 장자가 사냥을 즐기고 있노라니, 남쪽에서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다. 날개는 일곱 자나 되고, 눈은 한 치나 되는 큰 놈이었다. 까치는 장자의 이마를 스치고 날아가서 가까운 밤나무 숲에 앉았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품과 앉는 모양새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이상한 새다. 저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도 잘 날지를 못하고, 저렇게 큰 눈을 가지고도 앞을 잘 보지 못하다니”

장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밤나무 숲으로 들어가 까치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니 그 까치의 행동이 어색한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버마제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까치는 버마제비를 노리느라 장자가 가까이 다가와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장자는 이번에는 버마제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버마제비는 그 놈대로 까치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도 까마득히 모른 채 나무 그늘에서 울고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다. 물론 매미도 버마제비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버마제비도 까치도 먹이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자기 몸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자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먹이를 노리는 것이 또 먹이가 된단 말인가. 이익을 쫓는 자는 해를 부른다. 위험하기 짝이 없구나!”

장자는 활과 화살을 버리고 황급히 밤나무 숲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뒤쫓아온 밤나무 숲지기에게 붙잡혀 도둑이라고 실컷 욕설을 들었다. 까치를 노리던 장자 또한 숲지기의 표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 통찰력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 조나단 스위프트(1667-1745): 英 작가·성직자, ‘걸리버여행기’의 저자